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당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에 확신이 든 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두 손을 번쩍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자정 현재 득표율 40% 19대 대통령 확정
야권 심장부 광주·전남·북서도 압도적 우위
“국민만 보고 바른길 가는 대통령 되겠다” 강조**

관련기사 2·3·4·5·6·7·8·9·10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개표가 47% 진행된 이날 밤 12시 30분 현재 39.5%(597만5,009표)를 획득해 19대 대통령 당선을 확정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26.4%(399만 4,287표)를 얻어 2위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1.1%(321만5,956표)로 3위를 달리고 있다.
이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6.5%·97만 7,344표)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5.8%·87만 5,648표)가 4, 5위를 경쟁 중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41.4%의 득표율을 올려 압도적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각각 23.3%, 21.8%의 득표율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일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전체적으로 보면 문 대통령은 대구·경북·경남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안철수 후보와 치열하게 격돌했던 '야권의 심장부' 광주·전남·북서도 압도적 우위를 차지해 야권의 적지임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의 승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불러온 조기 대선 정국에서 구 여권에 대한 극심한 민심이반과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패배 후 재수 끝에 대권을 거머쥐게 됐고, 민주당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9년 2개월여만의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적폐청산과 통합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내건 '문재인 시대'가 도래하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걸쳐 대변화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적폐청산을 통한 화해와 치유를 통해 국민 통합을 완성하겠다"며 사상 최초로 이념·세대·지역을 뛰어넘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승리가 확실시된 직후 서울 광화문 광장을 찾아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 잊지 않겠다. 정적이 바로서는 나라, 열적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혼신의 힘을 다해 새로운 나라 만들겠다"며 "국민만 보고 바른 길을 가는 자랑스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변화의 열망에 부응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패배를 수용했다.
홍준표 후보도 "무너진 땅을 재건한 데 만족하겠다"고 승복했다.
현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의 잠정투표율 77.2%를 기록했다. 이는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다.

/정근산 기자

'야권텃밭' 호남 결국 '문' 선택 "정권교체·적폐청산 힘 심자" 지지율로 반영

문재인-안철수 대결구도가 팽팽했던 '야권 심장부' 호남의 민심은 결국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다.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다.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높은 지지율로 새 정부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이후 두 달간의 '장미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여론은 '준비된 대통령 후보' 문재인 후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그러나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부터 2015년 4·29 재보선까지 잇따라 참패하면서 문 후보와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를 뒷받침하듯 호남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문 후보의 턱밑까지 올라오기도 했지만, 문 후보는 지지율 선두를 한 차례도 빼앗기지 않았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문 후보의 호남지역 지지율은 4월 중순 50%까지 상승했다가 4월말 39%까지 하락, 선거 직전인 5월 첫 주 다시 40% 중반대로 회복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4월 초 42%까지 올랐으나 4월 셋째 주 30% 초반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다.
탄핵 직후인 지난 3월 14~16일 한국갤럽의 자체 여론조사(1,004명 대상·광주전라 100명, 표본오차 95% 신

뢰수준에 ±3.1%p)에서 호남 유권자들의 대선후보 지지도는 문재인 47%, 안철수 20%, 안희정 11%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4월 3~4일 리얼미터가 시행한 여론조사(MBN·매일경제 의뢰, 1,013명 대상·광주전라 103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서는 문재인 45.3%, 안철수 42.1%, 유승민 3.3% 등 안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4월 12일 한국리서치(JTBC 의뢰, 1,000명 대상·광주전라 102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조사에서도 문재인 45.9%, 안철수 41.1%, 심상정·유승민·홍준표 1.0%로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양강 구도가 유지됐다.
그러나 4월 셋째 주부터 선두 문 후보와 이를 추격하던 안 후보간 격차가 점차 벌어지기 시작했다.
4월 18~20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1,004명 대상·광주전라 116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서는 문재인 51%, 안철수 35%, 심상정 4%로 차이가 벌어졌다.
당시 두 후보 사이 가늠 측정 공방과 네거티브 공방이 거세지면서 문 후보를 3%포인트 차이로 따라붙었던 안 후보의 지지율은 한 주 사이 7%포인트나 하락하게 된다.
대선후보 TV토론 등에서 안 후보가 '우클릭' 행보로 중도·보수 표심 끌어안기를 시도한 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기철 기자